

# ArgoCD 경고 해결 방법



argocd에서 airflow 를 kubernetes 에 배포 했는데, 다음과 같은 warning 이 나는데, 지금 iclhk8s-prod-dl-ops-airflow-pdp-dev-airflow 이것을 사용중이거든.

SharedResourceWarning, ClusterRoleBinding/airflow-pre-checker-binding is part of applications argocd/iclhk8s-prod-dl-ops-airflow-pdp-dev-airflow and iclhk8s-prod-dl-ops-airflow-smartdq-dev-airflow

경고의 뜻부터 정리할게요.

### **SharedResourceWarning**

Argo CD가 두 개의 Application이 **동일한 리소스(여기서는 ClusterRoleBinding/airflow-pre-checker-binding)** 를 동시에 "소유"하려고 한다고 판단할 때 뜹니다.

지금 iclhk8s-prod-dl-ops-airflow-pdp-dev-airflow 와 iclhk8s-prod-dl-ops-airflow-smartdq-dev-airflow 가둘 다 이 ClusterRoleBinding을 관리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ClusterRoleBinding은 클러스터 범위라 이름이 겹치면 바로 충돌 후보가 됩니다.)

핵심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 A안) 공유 리소스를 따로 분리(One owner)

"공유되는" ClusterRole/ClusterRoleBinding을 **별도 App/Release** 로 떼어내고, 각 Airflow 앱에서는 생성하지 않도록 꺼버립니다.

#### 어떻게

- 1. "shared" 전용 Helm 차트(혹은 Kustomize)로 아래만 배포
  - ClusterRole
  - ClusterRoleBinding (예: airflow-pre-checker-binding-global 같이 명확한 이름)
- 2. 각 Airflow 앱(= 두 개의 dev 앱)에서는 해당 RBAC 생성 옵션을 **비활성화** 
  - 차트 값 예시(차트마다 키 이름 다름; 보통 이런 류가 있습니다):

```
rbac:
create: false # 또는 preChecker.rbac.create: false, web.rbac.create: false 등
```

- 3. Argo CD App-of-Apps나 Sync Wave로 **shared** → **각 Airflow** 순으로 적용되게 정렬
  - shared 매니페스트에:



```
metadata:
   annotations:
    argocd.argoproj.io/sync-wave: "0"
```

• 각 Airflow 앱에는 "1" 이상을 부여

### 장점

- 소유권 충돌이 깔끔히 사라짐(단일 오너).
- 이후 Airflow 앱을 몇 개 더 만들어도 충돌 없음.
   주의
- 사용하는 Airflow 차트에서 "그 RBAC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필요.

# B안) 리소스 이름을 각 릴리스마다 유니크하게(Per-release)

각 Airflow 릴리스가 **서로 다른 이름**의 ClusterRoleBinding을 만들게 합니다. 차트가 **fullnameOverride/nameOverride**를 RBAC 이름에도 **반영**한다면 가능해요.

#### 예시

```
# pdp-dev
fullnameOverride: iclhk8s-prod-dl-ops-airflow-pdp-dev
# smartdq-dev
fullnameOverride: iclhk8s-prod-dl-ops-airflow-smartdq-dev
```

그 결과 RBAC 이름이 iclhk8s-prod-dl-ops-airflow-pdp-dev-pre-checker-binding 처럼 달라지면 충돌이 없어집니다.

### 장점

• 앱 분리 유지, 의존성 없음.

주의

● 경고의 대상 이름이 현재 airflow-pre-checker-binding 으로 고정돼 보입니다. 차트가 이름을 하드코딩했다면 B안은 **불가** → A안으로 가야 합니다.

### 지금 당장 점검할 5분 체크리스트

1. 누가 붙잡고 있나 확인

```
bash
kubectl get clusterrolebinding airflow-pre-checker-binding -o yaml | \
   yq '.metadata.labels, .metadata.annotations'
```

여기서 argocd.argoproj.io/instance(또는 app.kubernetes.io/instance) 라벨/어노테이션이 **두 앱 모두** 찍혀 있거나, 한 앱이지만 둘 다 매니페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SharedResourceWarning이 납니다.



#### 2. 차트 값에서 RBAC 토글 찾기

Airflow 차트 values.yaml에서 아래 류의 스위치를 검색:

- rbac.create
- precheck.rbac.create, pre-upgrade-check.rbac.create
- webserver.rbac.create, scheduler.rbac.create ...(차트에 따라 다름)

### 3. 전략 결정

- 차트가 이름 변경 불가/하드코딩 → **A안(공유 리소스 분리)**
- 이름 변경이 RBAC에도 반영 가능 → **B안(릴리스별 유니크 이름)**

### 4. 마이그레이션 순서(권장 A안 기준)

- shared App 배포(ClusterRole/Binding만)
- 두 Airflow App values에서 RBAC 생성 false 로 변경 → Sync
- 기존 airflow-pre-checker-binding 에 찍힌 잘못된 instance 라벨이 있으면 한 번 삭제 후(리소스만), shared App 으로 재생성되게 하세요:

bash

kubectl delete clusterrolebinding airflow-pre-checker-binding # 이후 shared 앱 Sync

• 두 Airflow 앱 Sync (이제 해당 RBAC은 만들지 않으니 경고 사라짐)

## 덧: 임시로 "무시"하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님

resource.exclusions 나 ignoreDifferences로 경고를 덮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 충돌 자체는 남습니다. RBAC 같은 클러스터 스코프는 **단일 오너 원칙**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쓰시는 Airflow 차트(리포/버전) 알려주시면

- A안: "shared-rbac" 미니 차트/Kustomize 예시,
- B안: values 패치 예시(정확한 키로), 바로 손에 잡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rgocd에서 kubectl에 airflow를 배포했는데, airflow-webserver 에서 STATUS가 OutOfSync로 계속 나오는데, argocd에서 리소스를 diff해보면 checksum/webserver-secret-key 이부분이거든, 왜 그러지? 다른 리소스들은 모두 초록색(정상) 상태로 되거든.

이건 거의 100% "헬름이 매 렌더마다 만들어내는 랜덤 값" 때문입니다.



airflow-webserver Deployment 템플릿에 보통 이런 주석이 있어요:

annotations: checksum/webserver-secret-key: <해시>

이 해시는 **웹서버 시크릿(Flask SECRET\_KEY 등)** 템플릿 내용을 해시한 값이고, 차트가 randAlphaNum 같은 함수로 키를 "자동 생성"하도록 돼 있으면 **매번 다른 값**이 렌더됩니다.

결과: 아르고가 "라이브=이전 해시, 디자이어드=새 해시"로 읽고 OutOfSync가 계속 뜹니다. (다른 리소스는 고정이어서 초록색)

간단히 정리하면:

- 증상: Deployment/airflow-webserver의 spec.template.metadata.annotations.checksum/webserver-secret-kev만 계속 바뀜
- 원인: 차트가 webserver secret key를 매 렌더마다 새로 생성  $\rightarrow$  체크섬이 매번 달라짐

## 빠른 확인(3분)

```
# 1) 라이브에 박힌 체크섬
kubectl -n <ns> get deploy airflow-webserver \
    -o jsonpath='{.spec.template.metadata.annotations.checksum\.webserver-secret-key}'; echo
# 2) 아르고가 렌더한 디자이어드(템플릿) 체크섬
# (CLI가 가능하다면)
argocd app manifests <APP_NAME> | \
    yq '. | select(.kind=="Deployment" and .metadata.name=="airflow-webserver") |
        .spec.template.metadata.annotations."checksum/webserver-secret-key"'
```

두 값이 매번 달라지면 "자동 생성" 케이스가 맞습니다.

### 해결 전략

### A안(권장): 시크릿을 고정해서 쓰기

1. 시크릿을 직접 만들어 둡니다.

```
bash
# 길고 랜덤한 키 하나 생성(예: 64바이트)
KEY=$(openssl rand -base64 64)
kubectl -n <ns> create secret generic airflow-webserver-secret \
    --from-literal=webserver-secret-key="$KEY"
```

2. 헬름 values에서 "기존 시크릿 사용"으로 돌립니다. (차트마다 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형태 중하나)

```
yaml

# 예시 1: existingSecret 패턴
webserver:
existingSecret: airflow-webserver-secret
existingSecretKey: webserver-secret-key
```



```
# 예시 2: 직접 값 고정(차트가 지원하면)
webserver:
secretKey: "여기에_고정_문자열" # 값을 명시하면 randAlphaNum 사용 안 함
```

정확한 values 키가 다르면 알려주세요. 쓰시는 Airflow 차트 리포/버전 보고 딱 맞는 키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효과**: 체크섬이 더 이상 매번 바뀌지 않아 OutOfSync가 사라집니다. (시크릿 값이 고정  $\rightarrow$  해시도 고정)

### B안: 아르고에서 그 필드만 무시

근본 해결은 아니지만, 운영상 허용할 수 있으면 ignoreDifferences로 해당 경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는 슬래시 이스케이프입니다.

**주의**: 이렇게 하면 웹서버 시크릿이 진짜로 바뀌어야 할 때도 "차이 감지"가 안 됩니다. 가능하면 A안으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 왜 웹서버 시크릿이 중요한가요?

Airflow 웹서버(Flask)는 세션/CSRF 보호를 위해 **SECRET\_KEY**를 씁니다. 키가 바뀌면 모든 세션이 무효화되고, 쿠버네티스 롤링 시에도 예상치 못한 로그인 끊김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에선 **한 번 정하고 고정**이 맞습니다.

### 결론

- checksum/webserver-secret-key만 튄다 = "렌더마다 바뀌는 시크릿" 신호.
- 가장 깔끔한 해결: 시크릿을 직접 만들어 두고 차트가 그걸 참조하게 설정.
- 임시 땜빵: ignoreDifferences로 해당 경로 제외(권장 X).

차트 리포/버전만 알려주시면, 지금 쓰시는 values.yaml에 맞춰 **정확한 키 이름**으로 패치 블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a안으로 할려고 하는데 2.9.2 airflow values.yaml 속성이 없는것 같아. (existkey같은것)

좋아요, **A안(고정 키 사용)** 으로 가려면 "키를 차트에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쓰시는 차트가 **공식 Apache Airflow Helm chart** 라면, values 에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 1) values에 키를 직접 고정 (가장 단순)

```
yaml
# values.yaml
webserverSecretKey: "<여기에_강력한_랜덤_키_고정>"
```

#### 키 생성 예:

```
python3 -c 'import secrets; print(secrets.token_hex(16))'
```

공식 문서가 바로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checksum/webserver-secret-key**가 **고정**되어 ArgoCD OutOfSync가 사라집니다. Apache Airflow

### 2) 기존 Kubernetes Secret을 참조

values에 **Secret 이름만** 지정하는 방식도 지원돼요:

```
yaml
# values.yaml
webserverSecretKeySecretName: my-webserver-secret
```

그리고 시크릿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
kubectl -n <ns> create secret generic my-webserver-secret \
    --from-literal="webserver-secret-key=$(python3 -c 'import secrets;
print(secrets.token_hex(16))')"
```

해당 시크릿의 key 이름은 webserver-secret-key 여야 합니다. 이 경로도 공식 가이드에 명시돼 있어요. Apache Airflow

### "내 values에 저 필드가 안 보인다" 체크 포인트

● 공식 차트면 파라미터 레퍼런스에 webserverSecretKey, webserverSecretKeySecretName, 그리고 이를 읽도록 하는 **내장 시크릿 연동** 항목 (enableBuiltInSecretEnvVars.AIRFLOW\_\_WEBSERVER\_\_SECRET\_KEY)이 있습니다. 검색 키 그대로 문서에 있어요. Apache Airflow • 만약 **Bitnami 차트**를 쓰는 거라면 키 이름이 달라요(예: webserver 쪽 "secret key"를 chart 값으로 고정하거나, 기존 Secret을 참조). Bitnami도 다중 웹서버 시 고정 키를 요구합니다. 쓰는 차트 리포/버전을 알려주시면 해당 차트 문법으로 바로 블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rtifact Hub

### 적용 순서(권장)

- 1. (위 1번 또는 2번 방식 중 하나 선택) values 수정/Secret 생성
- 2. ArgoCD에서 해당 App Sync
- 3. Deployment/airflow-webserver의 annotation 확인

```
bash

kubectl -n <ns> get deploy airflow-webserver \
   -o jsonpath='{.spec.template.metadata.annotations.checksum\.webserver-secret-key}'; echo
```

값이 더 이상 매 렌더마다 바뀌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쓰시는 **차트 리포/버전**과 현재 values 일부만 보여 주세요. 그 문법에 딱 맞춰서 최소 변경 패치 (yg/kustomize/helm values)로 정리해 드릴게요.



1안으로 하니깐 warn없이 깔끔하다. 굿

깔끔하게 잡혔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checksum/webserver-secret-key가 매번 바뀌던 건 결국 그 랜덤 시크릿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고정 값으로 잡아두면, ArgoCD 입장에서도 "이건 안정된 desired 상태"로 인식해서 불필요한 diff가 전혀 안납니다.

이제부터는 OutOfSync가 뜨면 진짜 의미 있는 변경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운영 중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쿠버네티스에서 crictl 명령어대해 알려줘

좋은 질문이에요.

crictl은 Kubernetes가 내부에서 쓰는 컨테이너 런타임(Container Runtime Interface, CRI) 을 직접 다루기 위한 CLI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kubectl이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이야기하는 도구라면,

crictl은 kubelet이 컨테이너 런타임(containerd, CRI-O, etc.)과 이야기할 때의 언어를 직접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Kubernetes 구조를 간단히 보면:

```
java

kubectl → apiserver → kubelet → container runtime (containerd / CRI-0)
```

여기서 **crictl**은 kubelet이 runtime에게 보내는 요청(CRI gRPC API)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이나 로우레벨 컨테이너 확인용으로 자주 씁니다.

# 🔷 기본 구성

보통 /etc/crictl.yaml 에 runtime 소켓을 지정해둡니다. 예:

```
runtime-endpoint: unix:///run/containerd/containerd.sock
image-endpoint: unix:///run/containerd/containerd.sock
timeout: 10
debug: false
```

# 🔍 주요 명령어

명령어	설명
crictl ps	실행 중인 컨테이너 목록 보기 (docker ps 유사)
crictl ps -a	모든 컨테이너 (종료된 포함)
crictl pods	PodSandbox 목록 보기 ( <b>kubectl get pods</b> 와 다름 — kubelet 단위)
crictl images	이미지 목록 보기
crictl pull <image/>	이미지 수동으로 받기
crictl inspect <container_id></container_id>	컨테이너 상세 정보
<pre>crictl logs <container_id></container_id></pre>	컨테이너 로그 확인
<pre>crictl exec -it <container_id> /bin/bash</container_id></pre>	컨테이너 내부 진입 (kubectl exec 유사)
crictl stats	컨테이너별 리소스 사용량 보기
crictl rm <container_id></container_id>	컨테이너 제거
crictl rmp <pod_id></pod_id>	PodSandbox 제거
crictl version	CRI 버전 확인

# 💡 활용 예시

### 1. 노드 단위에서 직접 컨테이너 확인

```
bash
crictl ps -a | grep airflow
```

### 2. Kubelet이 실제 어떤 컨테이너를 올렸는지 확인

```
bash
crictl pods
```

### 3. Pod가 Pending이나 CrashLoop일 때 내부 런타임 레벨 확인

```
bash
crictl inspect <container_id> | jq .
```

### 4. 이미지 캐시 상태 점검

```
bash
crictl images
```

# **///** 흔한 실수/주의점

- crictl은 kubectl과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kubectl이 안 되는 노드에서도, kubelet과 runtime만 살아 있으면 crictl로 확인 가능.
- Pod 이름이 아니라 Pod ID나 Container ID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 Docker 기반(Kubernetes 1.24 이전)에서는 잘 안 쓰고, docker ps로 대체되곤 했지만 containerd로 넘어가면서 crictl이 표준 디버깅 도구가 됐습니다.

# 📕 예시: Airflow pod 디버깅 시

Pod가 "ContainerCreating" 상태에서 멈춰 있다면,

```
crictl ps -a
crictl pods | grep airflow
crictl inspectp <pod_id>
crictl inspect <container_id>
crictl logs <container_id>
```

이렇게 runtime 레벨에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belet 로그와 짝지어 보면 특히 유용합니다.)

원하시면 crictl을 사용해서 **특정 노드에서 Airflow 파드가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디버깅하는 절차**도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쪽으로 이어가볼까요?